

# ‘尹 명예훼손’ 의혹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여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 뉴스타파 “검찰 주장은 근거 없는 ‘소설’”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복수의 언론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김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김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수사의 방향을 뒤집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15일 진행된 신 전 위원장

과의 만남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사업 관련성 부정 ▲윤 대통령의 조씨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합의된 인터뷰가 아니라는 취지다.

뉴스타파의 설명을 종합하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4일 한상진 기자에게 녹취록의 존재를 알렸다. 한 기자와 김 대표는 같은 날 밤 신 전 위원장을 만나 녹음파일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다음날 편집회의를 거쳐 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 전 위원장은 지난 9월1일 압수수색 직후 취재진과 만나 “보도로부터 약 열흘 전 김 대표에게 구두로 얘기했다. 김 대표는 녹취록을 본 적이 없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기사 판단을 안 했을 것이다”

고 말한 적이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씨의 인터뷰를 왜곡해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는 김씨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짜깁기해 윤 대통령이 조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해 준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신 전 위원장은 김씨로부터 약 1억6500만원(부가세 1500만원 포함)을 받은 것이 조사되면서 이번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씨를 모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의 책을 판매한 대가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 대표에게 금전 거래 의혹에 관해 지난해 1월 보고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는 지난 9월1일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보도 결정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 불법적인 대선 개입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 9월14일 뉴스타파 사무실 내 한상진 기자의 자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타파 측은 김 대표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내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배임 수재 혐의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설’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3월6일 보도는 공식 후보자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검증 보도였으며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 김만배-신학림 두 사람 사이의 출판물 매매 거래와 무관한 것은 물론이다”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용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은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정권을 위해 휘두르며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폭거에 대해 분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JTBC 출신 봉지옥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터 대표 기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슬비기자



## 광주 동부소방, 전남대학교병원 관서장 현장 행정지도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최근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전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관서장 현장 행정지도도를 실시했다.

이슬비기자



## 고흥경찰, 제9회 자율방범대연합대 한마음 전진대회 감사장 전달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지난 2일 11시 고흥읍 소재 고흥군민회관에서 제9회 자율방범대연합대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화순경찰, 모바일 활용 주민참여 정성치안 발판 마련

화순경찰서(서장 박 응)는 공동체-플래폼친한 활성화를 위해 화순군방범연합대 임원진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 정성치안 간담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 순천 서면파출소, 노인 교통사고 및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

순천경찰서 서면파출소(소장 이강부)는 최근 6일간 서면 행정복지센터, 농협 노래교실, 노인정 등 11개소를 방문하여 노인교통사고 및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순천=김승호기자



## 보성경찰, 주민과 함께하는 정성치안 추진 보고회 개최

보성경찰서(서장 양백승)는 최근 보성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각 과-계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함께하는 정성치안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성=김영순기자



## 강진소방, 소방안전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 개최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2023년 소방안전 공모전 소방안전분야 수상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 올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의료용 마약류도 엄단”

### 올해 10월까지 이미 최다 인원 검거...공급사범도 7301명...압수량 909kg

마약 사범으로 올해 10월까지 2만2393명이 검거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검찰, 경찰 등이 포함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의료용 마약류 사건을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6일 대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약처제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중독자는 초범이라도 구

공판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고,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자는 구속수사를 통한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셸프처 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특수본이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면서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 사범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7.5% 증가한 2만2393명이다.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7301명으로 전년 동기(3,991명) 대비 82.9%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도 전년 동기(635.4kg)보다 약 43.2% 늘어 909.7kg이다.

영월지청·평창경찰서는 태극굴 케타민 등 마

약류 합계 약 30kg을 밀수입한 마약 밀수 조직 및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이를 판매한 마약 유통 조직을 수사했다. 조직원 27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인천공항본부세관은 협력해 약 2년간 바다패커 등을 이용해 케타민 17.2kg을 밀수한 4개 조직원 27명을 합동수사로 적발했다. 이 중 25명 구속 기소, 2명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특수본은 앞으로 지역별 마약수사실무협의회(검찰, 경찰, 세관, 해경, 국정원 등) 협력을 강화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 공조기능도 강화해 마약류 대량 밀수 차단 및 해외 도피 마약사범 강제송환을 활성화한다.

이슬비기자

## 롤스로이스男 피해자 사망 후 첫 재판...방청석 두리번 ‘여유’

### 피해자 사망으로 도주치상→도주치사 변경 오는 20일 피고인 신문 이어 재판종결 절차

악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롤스로이스 남씨’가 피해자 사망 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석지만 위촉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법원은 도주치사 혐의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의 공판을 열었다.

속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서 신씨는 상기된 얼굴을 보였으나 위촉된 기색은 없었다. 피고인에게 자리 잡은 그는 방청석을 두리번거려 재판이 시작하고 나서야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사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도록 한 공소장 변경을 허용했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지난달 25일 사망한 데 따

른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피고인신문에 이어 재판 종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씨는 올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미용시술을 받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미디어출판 등 약물 투약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출판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졸음, 어지러움, 운동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투약 후 운전 등에 주의해야 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



며, 수부 뒤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뉴시스